전통시장, 추석특수 잡아라

임실군 명절 장보기 행사
소비문화 확산 '안간힘'
합창단·각설이·경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임실군이 지난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심민 군수가 오수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임실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앞장선다.

군은 특히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등 소비형태가 많이 달라지면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무려 열흘간 전통시장 장보기 집중 행사를 진행, 명절 분위기 살리기와 소비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간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기간'을 정해 군 공무원들은 물론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겨냥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오수시장에서 심 민 군수와 지역 기관단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동시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실시했다.

심 군수 등은 이날 오수시장을 찾아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장 물품 구매 등을 통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유도에 앞장섰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상인회교육장 주차장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오수시장 장보러가세' 문화행사를 필봉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임실합창단 공연, 각설이 공연, 초대가수 초청, 노래자랑,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명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팔용 오수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장 상인들은 최상의 상품과 친절로 계속해서 찾고 싶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오수시장에 이어 27일에는 강진시장, 28일에는 신평시장, 30일에는 관촌시장을 거쳐 내달 1일 임실시장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열흘간 이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실사랑 상품권 등의 이용율을 높이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심 민 군수는 "이번 추석명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임실사랑 상품권 등을 통해 민생안정, 서민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나가겠다"며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통한 소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권 여행상품, 日시장 진출 발돋움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참가
상담회 · 업계 간담회 개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 본부장 문용수)은 최근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Tourism EXPO Japan 2017, 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지리산권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온라인 사전매칭을 통해 매칭성사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와의 세일즈콜 B2B 상담회, 현지 여행업계 오찬 간담회 및 부스 내 방객들에게 적극적 세일즈콜을 통해 지리산권 여행상품화를 위한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2012년부터 지속적인 참가로 꾸준히 인지도를 다져온 조합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신 관광트랜드에 맞추어 체험중심 볼거리, 먹거리, 디저트, 트래킹,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당일 및 1박2일 옵션투어와 계절별 여행코스를 중점적으로 현지 여행사들에게 어필했다. 21일~22일 양일간 열린 국제상담회에서는 JTB, 일본여행 등을 비롯 10개 아웃바운드 여행사와의 B2B 세일즈콜을 통해 지리산권의 다양한 관광지로서의 매력홍보 및 내년 여행상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테마기획 방안을 모색했다.

조합은 현재 위축돼 있는 중국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이번 일본 박람회에서 일본(도쿄)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 관광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타겟 마케팅을 통한 실질적 일본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리산권 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 마케팅에 나섰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시민 시골체험 '농촌 愛 올래' 첫선

순창, 체류형 관광상품 출시
10월 ~ 12월 총 15회 운영
식사·숙박 서비스 일체 제공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손잡고 농촌지역 체류·체험형 상품인 '농촌 愛 올래' 농촌관광 상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 愛 올래' 상품은 지난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구인 순창 고추장마을과 소규모 개별농가 등의 농촌관광 상품을 순창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농촌의 정을 느끼고 순창의 가치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 체험프로그램이 단순 경유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에 운영하는 상품은 순창에서 1박 2일, 2박 3일간 머물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관광 자원을 패키지화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5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1박 2일 프로그램의 경우 도시민이 순창에 도착하면 왜 전통장을 먹어야 하는지와 전통장에 숨겨진 역사속 뒷이야기를 통해 전통장의 다양한 활용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대를 이어 장을 담고 있는 순창고추장기능인 가정에 방문하여 기능인이 직접 담근 장아찌와 된장국에 밥을 먹고 직접 메주 씻고, 소금물 내려 된장과 고추장을 담아 봄으로써 우리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 해설사와 함께 장류박물관, 발효소스토굴 등 고추장마을 투어, 가족이 함께 된장, 청국장을 활용한 요리로 저녁상을 차려보는 식생활 교육, 순창강천산 맨발 트레킹, 농가에서 직접 상추따고, 가마솥 밥짓고, 미나리 캐고, 곶감도 만들어 본 후 농가 주인이 차려주는 시골밥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2박 3일 프로그램의 경우 승마체험, 팜파티, 카누체험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순창군은 전국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농촌관광 상품은 체험, 관광, 식사, 숙박 등이 어우러진 여행프로그램으로 출발부터 해산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큰 부담 없이 순창에서 힐링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전화 063-650-5455로 문의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와 남원의료원 직원들이 최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가위 맞아 따뜻한 손길 이어져

남원 예산동아리 · 의료원
차 나눔행사 · 의료봉사

남원시에는 시 살림살이를 고민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인 '온새미로'가 있다.

이 동아리는 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리 회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리산권 거점 병원인 남원의료원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차 나눔 행사와 의료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차 나눔 행사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활기를 불어 넣는 행사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아리 회원은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을 구입하기를 홍보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재래시장의 고민거리 및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드판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예산동아리 회원과 남원의료원 의료봉사팀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사를 건네고 아영면 농가에서 협찬해준 고랭지 사과와 포도를 제공했다.

대산면 노현남 어르신은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 남원시청 예산동아리회원들의 자발적인 차 나눔 봉사활동이 상인과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남원의료원의 의료봉사로 전통시장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메아리

임실군 공직기강 감찰활동 돌입

임실군은 안전하고 차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감찰반을 구성하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노출 또는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위반사례를 소속 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도 없는 만큼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지원

순창군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입양 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 신고를 한 입양 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2백만원이며,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3백만원까지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황숙주 군수는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인구증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남원시는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7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주제는 테마제안으로 '남원시 인구 늘리기 방안', 일반제안으로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 ▲생활공감 아이디어 및 업무혁신 정책 제안 등이며,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남원시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제출된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심의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여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노력상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남원=유영철 기자